

# 광주 3.2%·전남 2.9% ↑...소비자 물가 5개월째 상승

### 물가안정 대책 백약이 무효...과일 등 신선식품 여전히 고공행진 사과는 전달보다도 8.3% ↑...오징어·고등어·소고기 등도 올라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신선과실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물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78로 전월

(114.61)과 전년 동월(111.24) 대비 각각 0.1%, 3.2% 올랐다.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17.31로 전월과 보험세를 보였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3.3%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신선식품지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휘발유 등 공업 제품과 택시료 등 서비스 부문에서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기준 134.86으로 전월(138.43)에 비해 2.6%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115.67)보다는 여전히 16.6% 높았다. 특히 신선과실류의 경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전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에 견줘서는 40.7%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배가 1년 전보다 166.2% 비싸고, 사과(+79.2%), 수박(+30.8%), 참외(+21.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오징어(+11.9%), 고등어(+4.6%) 등 수산물 가격 강세로 인해 신선어개류 역시 전월 대비 2.5%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의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0.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역시 지난 1월부터 5개월째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6으로 전월(114.99)과 전년 동월(111.78) 대비 각각 0.1%, 2.9% 상승했다. 전국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에 따라 전남지역의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3.2%) 보다 상승폭이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군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 이외의 생활물가지수는 전월에 견줘 0.1% 오른 반면, 식품 생활물가지수는 0.4% 하락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월 대비 호박(-35.0%), 오이(-22.1%), 토마토(-16.3%), 풋고추(-14.0%) 등은 내렸지만, 식용유(+8.6%), 고등어(+3.1%) 등은 올랐다. 특히 사과는 또다시 전월보다 3.3% 올랐고, 전년 동월보다는 85% 비쌌다. 품목상질별로 보면 상품은 농축수산물(-1.5%)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0.2%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3.4% 상승했고, 서비스는 전월과 전년 동월에 견줘 각각 0.3%, 2.4%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엔비디아·AMD 나란히 새 'AI 칩' 발표...HBM 시장 경쟁도 가열

### 대만 테크 엑스포 '컴퓨텍스'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기대

엔비디아와 AMD가 나란히 새 인공지능(AI) 칩을 공개하면서 칩에 채택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고성능 차세대 HBM 수요를 잡으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테크 엑스포 '컴퓨텍스 2024'에서 엔비디아는 6세대 HBM인 HBM4를 처음으로 채택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을 처음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GPU 기술 로드맵을 소개하며 루빈을 2026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루빈에 HBM4를 8개, 이어 2027년 출시할 루빈 울트라에 HBM4 12개를 각각 탑재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새로운 GPU 플랫폼인 블랙웰을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그다음 세대 제품인 루빈을 선보였다. 황 CEO는 올해부터 8단 HBM3E를 8개 탑재한 블랙웰을 생산하고, 내년에 12단으로 층수를 높여 성능을 강화한 HBM3E가 8개 들어가는 블랙웰 울트라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AMD도 이번 컴퓨텍스에서 AI 가속기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기조연설에서 리사 수 AMD CEO는 새로운 AI 가속기 'MI325X'를 올해 4분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325X는 업계 최대인 288GB 용량에 초고속

HBM3E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이다. 빅테크들이 고성능 차세대 HBM을 사용하는 AI 칩 신제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HBM 수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시장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AMD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추격하는 모양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적극 '베풀'한 결과 D램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 시장 주도권을 잡았다. HBM에서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AMD에 HBM3를 공급하고 있다. AMD의 새 가속기 MI325X에도 삼성전자의 12단 HBM3E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에 HBM 주도권을 빼앗긴 삼성전자는 HBM3E 등 차세대 HBM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와뱅크'서 지역 특산물 광고한다

김치타운과 지역상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민)은 최근 본점에서 ㈜김치타운과 지역 특산물 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와요정리'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김치타운의 지역 특산물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광주 와뱅크' 앱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지역상생 금융을 실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광주 와뱅크-생활혜택-요즘'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특산물인 남도김장김치와, 갯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모두 브랜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편의는 물론 지역업체, 생산자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순천광양축협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수상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범농협 청렴문화 확산과 선도 농축협에 대한 위상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 순천광양축협은 윤리경영 가치 실천을 위해 매년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축산 사랑 그리고 소중함'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 미래 세대에 축산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줬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협을 위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나누는 '나눔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배민 '라이더 1~4월 월 평균 수입 393만원'

"지난해보다 40만원 늘어"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에서 주 40시간 이상 운행하는 라이더들의 월소득이 지난 1~4월 평균 39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353만원)와 비교하면 40만원(11.3%) 증가한 것이다. 운행 시간에는 유휴, 대기 시간까지 포함했으며 월소득에는 올해부터 지원되는 상생지원금(연간 최대 258만원) 등 추가 소득은 제외됐다. 1~4월 상위 10%의 수익을 올린 배민 라이더들의 월평균 소득은 404만원으로, 작년 동기 377만원보다 27만원 더 늘었다. 이들의 주간 운행 시간은 47.79시간에서 46.42시간으로 1시간 이상 줄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효율을 높여 라이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배달' 시행 약 1년 만에 성과"라고 설명했다. 알뜰배달은 인공지능 추천 배치를 기반으로 여러 건의 배달을 최적화된 동선으로 묶어 라이더들에게 제안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 말 관악구에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2.10(-20.42)
↑ 코스닥	845.84(+1.12)
↓ 금리(국고채 3년)	3.390(-0.044)
↓ 환율(USD)	1376.00(-0.10)

## 소비에 신념을 더하다...보해양조 영화 택시운전사 콜라보 '눈길'

### '택시운전자 앞새주 특별판' 주목

신념을 소비로 연결하는 '미닝아웃' 트렌드 속에서 보해양조가 최근 선보인 '택시운전자 앞새주 특별판'이 주목받고 있다. 미닝아웃은 신념을 의미하는 미닝(meaning)과 밝힌다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의 합성어로, 소비로 자신의 가치를 적극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해양조는 소비자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고, 소비자는 의미 있고 기본 중계 제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광주의 정체성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을 차용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앞새주 라벨을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로 꾸몄다.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으로서 5월을 맞아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제품에 '앞새주가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보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앞새주를 지난 4월과 5월, 지역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가야 타이거즈 홈구장을 찾아 홍보에 나섰다. 경기장에 영화 '택시운전사' 속 브리샤 택시의 실제 모델을 설치하고 포토존을 마련해 지역민



광주FC 홈구장에 설치된 영화 '택시운전사' 속 브리샤 택시에 탑승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시민들. 특별판을 통해 5·18 당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지역민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머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패션·편안함 다 잡은 아웃도어 여름샌들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슈룸마보니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이 여름 샌들 신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슈룸마보니 샌들은 강렬한 색감과 패셔너블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시원한 착용감으로 인기가 많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슈룸마보니 매장에서는 여름을 앞두고 다양한 2024년 S/S 신상품 샌들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